

다 이루었다. (마태복음 28:1-10)

오늘은 부활절 주일이다. 우리가 잡은 언약은 다 이루었다는 것이다. 세상을 살면서 인간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원죄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더 깊은 원인은 사단이다. 원인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자꾸 틀어진다. 원인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과 같아지면, 답에 대한 생각이 같아진다. 누구든지 이 작업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원인은 원죄요, 사단이요. 답은 그리스도이다. 그 다음은 답을 누리는 것이다.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이 답이라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 하고 있다.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살지 않는다. 믿기는 믿는데 누리거나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언약을 누리는 것은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부족하지만 계속 지속하면 응답이 나타난다.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 받는게 아니고 누리는 중에 응답이 자동으로 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전도에 대해서도 중대한 쓰임을 받는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문이 열려야 할 수 있다. 이렇게 살면 인생을 정복한다. 사단과 세상도 정복하고 그리고 다 초월한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아서 성찬식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성찬식이다. 그냥 예수님이 하신 것이니까 하고, 기념하러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중요한 언약이 들어 있다. 누가복음 22:19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하셨다. 기념하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그것을 마음에 각인하라는 말이다. 각인이 되면 역사가 일어난다. 보통의 신자들은 믿고 자기가 할려고 한다. 각인이라든지 누림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언약이 되어지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밖에 나가서 신자들을 만나보면 알겠지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믿었다. 그 다음은 한다. 나쁜거 아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자꾸면 하나님이 2등이 되어 진다. 믿는 것도 하나님이 일등이고 역사일어나고 증인되는 것도 하나님이 일등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말씀하신대로 역사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개념이 많지 않다. 그리고 많이 하면 좋은 신자가 된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은 일등은 아니다. 이등이지. 왜냐하면 자기가 하니까. 하는게 나쁜게 아니고, 누리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지가 하니까. 기도도 그렇다. 기도를 대부분 안한다. 밖에 성도들이 거의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는 응답을 많이 받는다. 그게 맞는 줄 안다. 자기 보다 응답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진짜 기도는 뭐가? 언약이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내 기도제목 있어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언약을 누림으로 응답받으면, 그러므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가 되어야 정답이다. 그런데 이런 개념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를 한다. 다른 사람보다도 응답을 더 많이 받는다. 다 그게 맞는 줄 안다. 완전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등 아니다 이것이다. 결국 눈에 안 보이는 종교를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끝까지는 못 간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다 말아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안된다. 이등한테는 역사를 하다가 말아버린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니 기도 듣고 응답은 한다. 그런데 끝까지 가야 되잖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끝까지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직 그리스도이다. 기도에도 전도에도 오직 그리스도이다. 내 모든 삶이나 응답에도 오직 그리스도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백점이고 일등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데리고 끝까지 가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성찬식이다.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잔을 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는 내 피, 곧 너희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 하나님 약속의 모든 것이 들어 있다. 언약이 각인되면 역사가 일어난다. 대부분은 역사를 위하여 기

도를 많이 하고 있다. 말씀드린것처럼 틀린 것 아니고 나쁜 것 아니다. 그러나 일등은 아니다. 일등해야 안되겠나? 그래야 미국 끝까지 갈수 있다. 그래야 남미 끝까지 갈수 있다. 이 언약이 확인되어지면 저주에서 해방되는 출애굽 나타난다. 우리 인생에 출애굽해야 할 것 있는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는가? 언약 잡는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종교이다. 기도 안에 언약이 꼭 들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참 기도이고 일등기도이다. 광야같은 인생 아닌가? 응답이 있어야 한다. 응답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 그냥 기도하고 울고 있는가? 답인데, 일단 답 아니다. 왜 광야에서 이들을 지켰는가? 3일이면 다 죽는데 40년 살았다. 아무도 농사지은 사람 없는데, 굶어죽은 사람 하나도 없었다. 누가 우물을 팠는가? 목 말라 죽은 사람 없다. 이유가 뭐가? 언약의 피, 어린양의 피 잡았다. 두 번째, 그들은 가나안땅 가야 하는 것이다. 이 두 개가 답이다. 이 답으로 사는 사람이 증인이다. 이 답으로 100프로 사는 사람이 끝까지 간다. 이유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데리고 가기 때문이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식이다. 각인되어지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시간표를 주신다. 하나님, 오늘이 그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란다.

1. 다 이루었다.

부활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증거이다. 언약이 완성되었다. 예수님도 그 언약 때문에 부활하셨다. 본래 죽음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난 것은 예수님에게도 이 언약 때문이다. 요한복음 19:30절에 다 이루셨다고 하셨다. 그리고 영혼이 떠나가셨다. 부활은 원죄의 저주를 해결한 것이다. 부활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언약에 대한 열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언약이 사실이라는 증거이다. 원죄의 모든 저주를 해결했다. 죽으심으로 피흘림으로. 그 증거가 부활이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무엇을 이뤘는가 중요한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매일 이것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면 그 내용이 나의 삶의 현장에 나와 관계 없이 나타난다. 이것이 신앙생활, 각인, 누림이라고 한다.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 이것이 나타나야 내가 알 수 있다.

무엇을 이루셨는가? 3직을 이루셨다. 인간이 저주에서 나오는 길을 이루셨다. 인간이 사단의 머리를 깨고 세상을 정복할수 있는 길을 여셨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영원히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인간의 근본문제 세가지를 해결하는 길이다. 근본 문제는 원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에게 운명이 되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이걸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 아주 중요하다. 첫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저주가 없다는 것이다. 믿어야 한다. 그리고 나타나야 한다. 그 증거가 증인이 되는 것이다. 지옥 안가는 정도가 아니다. 모든 문제는 축복으로 바뀐다는 선언이다. 무조건 전부다 축복으로 바뀐다는 선언이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문제를 주시지, 문제가 저주가 되는 일은 절대 없다, 그것이 오늘의 선언이다. 내가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 조건 하나 있다. 예수님을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받는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깨는 권세도 그렇다. 이제 사단은 우리를 절대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사단에게 매일 쳐도 상관 없다. 절대 우리를 이길수 없다. 이유가 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흘리시고 뱀의 머리를 깨는 이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여기에도 조건은 하나 딱 있다. 사단의 머리를 깬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한 것도 그렇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다.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떠나려 해도 떠나지지를 않는다. 매일 하나님께 대들고 오만가지 죄를 다 지어도 하나님이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 여기도 조건은 한 개 딱 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받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매일 받아야 한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오늘도 지금 다시 한번 나의 그리스도로 받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도 없다. 이것보다 더 권세 있는 기도가 있겠는가? 이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있겠냐는 것이다. 있을수가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받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중대한 영적 사실이 우리 삶에 보여야 한다. 눈에 나타나고 육신적으로 보여야 한다. 그래서 증인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수 있는가? 그것이 누림이다. 누림은 잘 안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언약으로 다시 잡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다시 고백하는 것이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 모든 사실이 내게 나타나게 하는 비밀이 기도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난 것이 성취이다. 아무리 부족한 기도라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날 때 우리는 느낄 수 있다. 그렇구나,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정말로 그 때 뱀의 머리를 깎구나, 진짜 저주에서 나왔구나. 그걸 확인할수 있는 답이 뭐냐면 눈에 보이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그 답이 고백이고 누림이고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 작업이 너무 중요하다. 안되는 것 같아도 지속하면 되어져 있다. 결국 24시, 이 하나님을 누리는 이 능력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주님은 이 모든 약속을 증명하는 첫 열매였다.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증명이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증명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다. 주님의 부활은 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열매인 것이다. 이렇게 받아야 한다. 그 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 언약은 사실이고 지금도 역사하고 잡으면 흑암 세력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국과 남미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다.

## 2. 망대증인

그냥 증인이 아니고 망대같은 증인이다. 땅에만 서 있는 증인이 아니고 멀리 가는 증인이다. 미국과 남미 땅끝까지 가는 증인이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이다. 이유가 뭔가?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사단은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모든 문이 다 열린다.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천국 문 뿐 아니라 땅의 모든 문 다 열린다. 누가 이 언약 앞에 문을 닫고 있겠는가? 어떤 문이 이 언약으로 열리지 않겠냐는 것이다. 단지 이 언약을 안하는게 문제인 것이다. 바로 옆에서 뭔가 다른 것을 계속하고 체질이 되어서 복음을 알고 나서도 신앙생활은 옛날과 똑같은 것이다. 복음을 믿어야 구원 된다. 복음으로 살아야 역사 일어난다. 철칙이다. 그런데 복음으로 사는가?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무엇인가? 많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했고 롯은 안했다.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고 롯은 안 쌓았다. 근본적인 답이다. 답이 단이다. 그러면 단을 쌓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리스도를 죽으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모든 문제 해결이 있고, 여기에 사단 세상 정복의 길이 있다는 것이 답이다. 그러면 이것만 하면 된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다. 그래서 인생이 간단하다. 한 개만 하면 된다. 어찌 생각하는가? 해야한다. 답이라고 했다. 답이라는 단어도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들어봤지, 그 전에는 복음이 답이라는 이런 말 없었다. 그냥 믿는 것이었고 믿고 난 뒤에는 하는 것이었다. 많이 하면 좋은 신자였다. 나쁘지는 않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 없는 것이다. 내용이 없으니 자기가 해야 한다.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게 없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더 많은 응답을 받는다. 그 이등가지고는 끝까지 못간다. 일등, 100프로 내용,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이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모든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해야 한다. 절대 지는 법은 없다. 이겨 놓은 것을 하고 있다. 나타날때까지 낙심하

고 가는 사람도 있다. 그건 진짜 속은 것이다. 우리는 이긴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미 이겼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이 믿음 이 생길까? 이 믿음이 있고 없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길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그러면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그렇게 되는 것이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오해하면 안된다. 답은 그리스도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 주신 답은 그렇다. 그런데 왜 기도가 답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가? 우리는 그 기도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리스도가 중심이 안된 기도를 한다면 좀 고쳐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고 안 믿어질때에는 잡아야 한다. 되든 안되든 매일 고백을 해보아야 한다. 주님은 오늘도 나의 그리스도라고. 저주에서 해방이요, 모든 운명은 역전이라고 고백해야 한다. 뱀의 머리는 반드시 박살 날 것이고 모든 문은 다 열릴 것이다. 안되어져도 지속하면 되어지는 날이 온다.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여기에 모든 답 다 있다. 또 하나 이유는 이것을 이 땅에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해도 계속하면 되어지는 날이 오는 것이다. 항상 같은 소리이지만 어느날 눈이 열려서 그렇다면 그가 그리스도 아니냐?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백하고 언약으로 잡는 작업이 너무나 중요하다. 지속하는 자에게는 이 언약의 말씀이 그 인생중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응답이 계속 되어 지고, 인생이 자주 커지게 되어 있다. 생각이 커지고, 마음이 커지고, 눈이 저 멀리 가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언약을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 다른 사람 원망할 것 없다. 또 해도 안된다. 예수님은 이 모든 언약에 대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였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 노바디, 나뎃이 그런 의미이다. 필요없다. 이 언약이면 다 할수 있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했고, 롯은 안했다. 한 사람은 100이고, 안한사람은 0이다.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가족도 구원 받았다. 그러나 삶 속에서 언약을 안했다. 믿고만 믿는 바깥에 있는 신자들과 똑같다. 믿고 뭘 많이 하고 있다. 많이 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되고 내용을 진짜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 답을 가진 사람이 망대이다. 사람을 언약으로 살리고 증인되도록 만들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람을 제자로 세워서 전도할수 있게 하는 내용을 가진 사람이 망대이다. 미국과 남미의 많은 사람이 우리가 가진 복음을 보고 몰려온다면 그것이 망대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미국과 남미의 망대 교회이다. 그 내용은 안디옥교회이다. 복음과 성경적 전도 전략을 전달하는 내용을 가진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컨텐츠이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기도 응답에 아주 중요하다.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달하는 이것이 우리 응답에 아주 중요하다.

산업을 가진 사람은 그 산업의 성공여부가 여기에 상당히 달려 있을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산업을 왜 하는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라는 사상이 있어야 사업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은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이 성공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생각을 한다. 좋은 생각이 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업을 하나님의 소원과 언약으로 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오는 것이 좋다. 그래야 언약 사업이 된다. 이 언약으로 사업을 해야 그 사업 안에서 사단이 무너진다. 사업 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렇다. 실제로 삶이나 산업에서 실행하는것에 감이 잘 안 올수도 있다. 그래서 언약을 고백하고 그 언약을 잡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내 산업의 근본으로 잡는 것이다. 그리하면서 내 산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내 산업에 대한 공이 하나님께로 넘어가게 된다. 이게 우리의 기도이고 언약이다. 확실한 근본 그리스도와 함께 시대적인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란다. 성찬식을 통해 중요한 언약이 다시 한번 확인되기 바란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시간을 만들고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게 목상이다. 답 나면 영적으로 일단 승리한다. 그리고 증거가 계속 나타난다. 축복이 있기 바란다.